KOSME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2021 - 02호

中企 ESG 성과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

| 2021년 9월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CONTENTS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

요 약

Ⅰ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Ⅱ 국내외 ESG 도입현황

01. 국내외 ESG 동향 ····· 12
02. 국내외 ESG 도입사례 ····· 22
03. ESG 지원 정책 ····· 26

Ⅲ ESG 경영과 중소기업

01.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 31
02.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 36

Ⅳ 中企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

01.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추진현황 ····· 41
02. ESG 수준과 경영성과 ····· 50

Ⅴ 시사점 및 정책제언

01. 중소기업의 ESG 대응방향 ····· 53
02. ESG 연계지원 방안 제언 ····· 60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요약

中企 ESG 성과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中企 ESG 성과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요 약]

■ 서론: 연구배경과 목적

- **ESG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Enviro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
- **ESG경영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 기후위험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ESG과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 **ESG 도입 필요성**: ①금융권에서도 ESG를 평가기준으로 고려함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에도 영향, ②국내외 대기업들이 협력사 선정 시 ESG 요소를 반영함에 따라 ESG 대응시 공급망에서 경쟁우위 확보 가능, ③기업의 ESG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

-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평가결과와 경영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ESG 지원정책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방향성 제시 필요

* 정책자금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ESG 대응방향과 지원사업의 연계방안 도출

■ 국내외 ESG 도입현황

- **국내외 ESG 동향**: ESG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대상 ESG 경영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

- **(ESG 투자확대)** 세계 주요국 ESG 투자규모는 '20년 기준 35.3조 달러 수준으로, '16년 대비 55%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ESG 투자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작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국내 ESG 채권 상장규모('20년) : 549개, 82.6조원 (상장잔액)

- **(ESG 공시 규제·제도화 강화)**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국내도 상장사 대상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

* 기업지배구조는 '26년까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예정

-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21.7월) 발표,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 **국내외 ESG 도입 사례**: ESG 경영은 개별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공급망 생태계 차원의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협력사 대상 ESG 경영 확산 노력 추진 중

* 협력업체 대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지도,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자금 펀드

• **ESG 지원정책**: ESG 우수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컨설팅, 대·중소 상생협력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중

*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혁신바우처, 자상한 기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

■ ESG 경영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ESG 대응수준**: 중소기업 ESG 동향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은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전반적인 준비수준**은 부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1.6월)/(대상)1,000개사 대상 유효응답 300개사(응답률 30.0%)

** 준비됐거나 준비중(25.7%), 준비계획이 없다(34.6%), 준비할 계획이다(39.7%)

- **ESG 실천현황**: 환경분야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실천 수준도 낮은 편이었으며, 사회부분 실천도는 양호함

- **ESG 경영도입시 애로사항**: 비용부담, 인력부족, 가이드라인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어, 금융지원,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 필요함

- 시사점: ①중소기업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 수준은 미흡하여, 인식개선 등을 통한 ESG 경영 확산 필요, ②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③업종별 ESG 대응수준과 애로사항이 달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자금조달의 용이성, 공급망 우위 확보, 기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 필요성 확대

• **중소기업 ESG 경영사례** : ESG 기반 신규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 성공사례 확산·공유 필요

■ 中企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

• **ESG 추진현황:**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평가결과 분석 결과 ESG 성과지표는 '20년 52.0점으로 '19년 45.3점 대비 6.7점(14.8%) 개선됨

* 중진공은 '19년부터 환경, 사회적 성과 등 ESG 관련 지표가 포함된 정책목적성 평가 도입

- 전반적인 ESG 성과지표는 개선되었으며, 환경분야가 가장 취약했으며, 업종별로 평가가 우수한 분야와 세부항목이 상이함

분야별	**환경분야가 39.7점('20년)**으로 사회(47.6), 지배구조(68.8) 대비 **취약했으나** 전년 대비 개선율은 21.6%(7.0점)로 가장 높았음
업종별	ESG 수준은 **식료(50.2점)**가 가장 높았으며, 화공(49.3), 기계(47.9) 순 업종별로 평가가 우수한 분야와 세부항목이 상이 - 환경분야는 화공(38.9), 사회·지배구조 분야는 식료(47.4, 65.5)가 가장 높음
업력별	**15년 이상(50.0점)**이 가장 높음, 15년 미만(48.6), 7년 미만(45.7) 순임 **업력이 높을수록 전체 ESG 수준이 높았으나, 고용창출,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은** 업력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짐
종업원수	규모가 큰 기업의 전체 ES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부문,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 부문은** 소규모 기업의 수준이 오히려 높았음 고용창출은 일정 규모(20인 미만)까지는 높아지다가 20인 이상 규모에서는 하락

• **경영성과:**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ESG 지표와 경영성과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상·하위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협력사 상생협력 등의 지표가 성장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 영업이익률 상·하위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협력사 상생협력 등의 지표가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 협력사 상생협력 등의 ESG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 도입이 경영성과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중소기업의 향후 ESG 대응방향

•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접근

- ESG 공시제도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구매·입찰 등 거래 대상 선정에서도 ESG 평가가 확산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사회나 지배구조보다는 환경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동향 조사 결과)
-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앞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종별 수준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 지원 필요

• 기업유형별 대응방향

공급망 소속기업 대기업 협력사	수출국 규제, 거래기업의 ESG 규범 등 협력사에 대한 요구수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이에 부합하는 발 빠른 대응 필요
소비자 직접판매 (B2C) 기업	선제적으로 ESG 요소를 갖추고 마케팅 전략으로 적절히 활용 필요 중소기업은 업계 선도기업의 ESG 추진전략을 빠르게 쫓아가는 대응 필요
외부자금 조달 기업	정책금융기관에서도 ESG평가기준에 따른 우대기준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중소기업의 ESG 준비수준에 대한 정책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ESG 연계지원 방안 제언

• 중소기업의 ESG 인식 제고

- ESG 경영 중소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ESG 연관 평가지표에 기반한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운영
- ESG 경영 추진 우수사례, 최신 글로벌 동향정보 수집·제공

•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 ESG 경영 도입수준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책 연계지원
- ESG 경영전략 도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 ES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매칭 지원
-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전용상품 제공, 우대지원 등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저변 확대

- 낙후지역 특구 지정을 통한 ESG 전환 대응 및 취약부문 안전망 확충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ESG상생협력 추진
- 中企 ESG 평가정보와 DB 구축 및 中企 ESG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연구보고서 본문

Ⅰ. 서론: 연구배경과 목적
Ⅱ. 국내외 ESG 도입현황
Ⅲ. ESG 경영과 중소기업
Ⅳ. 中企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
Ⅴ. 시사점 및 정책제언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Ⅰ 서론: 연구배경과 목적

01 ESG 개념과 발전과정

ESG 개념

- ESG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이 전략을 실행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출처 : 국내외 ESG 평가지표 현황 분석 연구용역 (NICE평가정보, '21.7월)

- 즉,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창출하여,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함

- 전통적인 기업가치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계지표를 토대로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

- 또한, 국내외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는 추세로,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에게도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표 1. ESG 개념과 구성요소]

구 분	활용 내용
Environmental (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 있는 구매·조달 등
Society (사회)	· 고객만족, 데이터보호·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등
Governance (지배구조)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로비 등 정치 기부 ·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

* 출처 : 중소·중견기업 CEO을 위한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21.7월)

ESG 개념의 등장과정 (중소·중견기업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대한상의·삼정 KPMG))

- (지속가능성 의제 등장) 1987년 UN환경계획(UNEP)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브룬트란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인류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리우선언 채택) 1991년 ESG의 환경영역의 기초가 되는 세계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신설
- (UN PRI 원칙 설립) 2006년 ESG 관련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for Investment, 책임투자 원칙)를 발표함으로써,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마련
  * UN PRI에는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
- (GRI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발표) 2016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최초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GRI Standards)을 발표
- (TFCD 재무정보공개안 제시) 2017년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C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tial Disclosure)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 (BRT 선언) 2019년 진행된 BRT(Business Roundtable)*에서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주주를 포함한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
  * BRT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 약 2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회의
- (세계경제 포럼)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측정 가이드라인 백서를 발간하여,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 등 4대 분야의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 제시

02 ESG 경영의 필요성

○ 국내외 ESG 도입현황

- 코로나19 이후 기후위험 대응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 투자자는 기업선택의 기준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함에 따라 ESG 투자가 크게 확대

  * 글로벌 주요국 ESG 투자규모 : ('16년) 22.8조 달러 → ('20년) 35.3조 달러 (55%↑)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규제*와 ESG 정보공개제도 등 관련 규율 강화

  * EU 탄소국경제도 입법안 발표('21.7월), 글로벌 기업의 RE100(100% 에너지 사용 등)

- 국내외 대기업들이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밸류체인상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도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ESG 대응 준비수준은 대기업 대비 저조한 수준임

  * 중소기업 4곳 중 1곳(25.7%)만 'ESG 경영 준비 됐거나 준비 중'이며, ESG 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부담(37.0%),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중진공, '21.6)
  선진국(10점) 대비 ESG 대응수준(전경련, '21): (대기업) 7, (중견기업) 5, (중소기업) 4

○ ESG 경영 도입 필요성

- (자금조달) 금융권에서도 ESG 우수기업 대상 금리인하와 한도우대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는 등 ESG를 심사, 평가 요건으로 고려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객확대) 국내외 대기업이 환경, 사회 등 ESG 요소를 평가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ESG 이슈에 선제적 대응시 공급망에서 경쟁우위 확보 가능

- (기업이미지 제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과 매출 확대 등에 기여

03 연구의 목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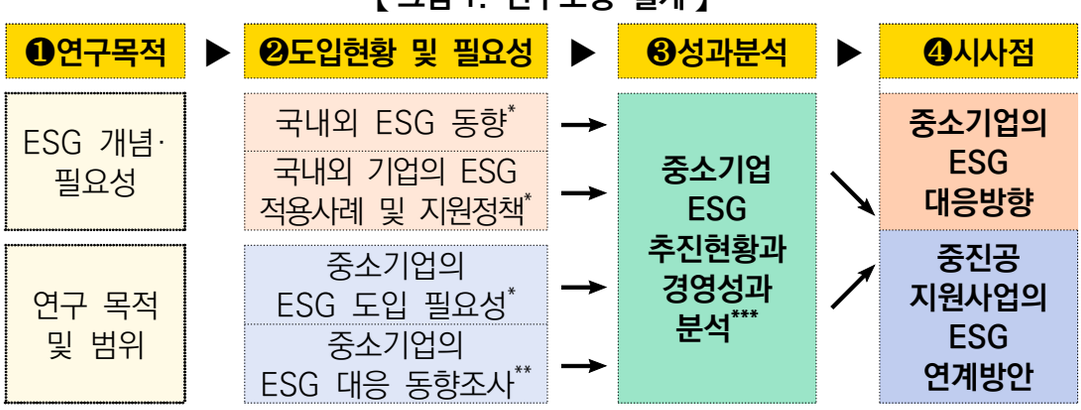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면서, ESG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매김함
- 투자자와 소비자는 기업 선택의 기준으로 재무적 가치 외에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고려함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임. 공급망 전체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ESG 경영영역을 협력사까지 확장하고 있어, 중소기업도 ESG 경영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이에,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中企의 ESG 추진현황 및 ESG 평가결과와 경영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ESG 지원정책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코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활용한 中企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ESG 대응방향과 지원사업의 ESG 연계방안 도출
  - 정책 및 선행연구 조사, ESG 대응 동향 및 도입사례 조사, 정책자금 지원기업 ESG 평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그림 1. 연구모형 설계 】



* 문헌조사(정부 정책 발표출처, 연구보고서 등)
** 모니터링 조사 (KOSME 이슈포커스)
*** 통계분석(기업평가 데이터, 경영성과(매출, 수익성 등) 데이터 활용 등)

II 국내외 ESG 도입 현황

01 국내외 ESG 동향

1 ESG 투자 확대

○ 책임투자 확대

- ESG란 용어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87년 세계환경경제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시작
-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은 기업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적용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으로 발전
  -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사회나 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처음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처럼 여겨졌으나, '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게 됨.
  - '21년 1월 현재 UN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한 기관은 3,634개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출처 : ESG 국제동향과 국내 시사점(금융위원회, '21.2월)
- ESG 관련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로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며, 국내에서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16.12월 제정된 이래 146개 기관이 참여 중('21.1월)

•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 위주로 책임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자산군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 요구 확대

* 출처 : 국내외 ESG 평가지표 현황 분석 연구용역 (NICE평가정보, '21.7월)

[표 2. 국내외 금융회사의 ESG 투자사례]

구 분	설 명
국민연금	○ 기금운영지침에 책임투자 원칙을 포함 ESG 관련 52개 평가지표 선정 ○ 기금의 위탁운용회사 선정시, 책임투자 이행 여부 포함 ○ '22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50%를 ESG 관련 투자로 재구성 ○ ESG 평가기준을 기존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에도 확대 적용
네덜란드 연기금	○ 무기제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 ESG 활동이 미미한 기업 투자 배제 ○ 에어버스, 필립모리스 등 159개 기업 투자 배제 ○ 포스코(환경파괴), 한전(석탄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철회 선언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 환경파괴 이유로 듀크에너지, 콜인디아 등 투자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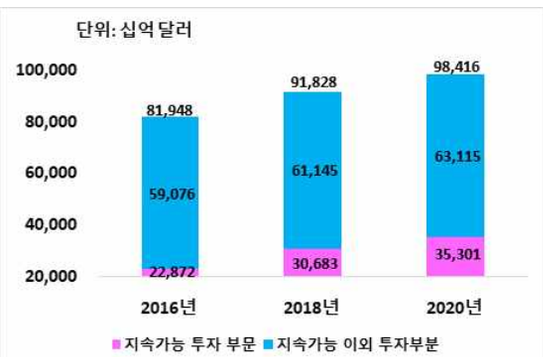
* 출처 :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21.7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1.1월)

○ 국내외 ESG 투자 확대 (ESG 국제동향과 국내 시사점(금융위원회, '21.2월))

• (글로벌) 주요국의 지속가능 투자자산규모는 '20년 $35.3조* 수준(전체 운용자산의 35.9% 차지)으로 '16년 대비 약 55% 증가

* 주요국 : 유럽($12조), 미국($17.1조), 캐나다($2.4조), 일본($2.9조), 호주($0.9조) 등

【표 3.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전체 운용자산	81,498	91,828	98,416
지속가능 투자	22,872	30,683	35,301
지속가능 투자 비율	27.9%	33.4%	35.9%
합계	72,044	270,981	282,318

* 출처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21.7)

• (국내) ESG 펀드 및 채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ESG 펀드) 펀드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작은 편이나, 자금유입 가속화

* '20.7월 기준, '17.7월 대비 운용자산규모, ESG 액티브펀드 약 3배↑, 인덱스펀드 약 6배↑

- 국내 ESG 펀드의 97% 이상이 연기금·공제회를 통해 투자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ESG 투자금 규모가 '17년 대비 292%가, 우정사업본부는 538%가 성장

* 국민연금은 '22년까지 전체투자의 50% 이상 ESG 기업에 투자할 방침

- (ESG 채권) '20.12월 기준 국내 ESG채권 상장 종목은 총 549개(상장잔액 82.6조원)으로 급속히 성장 중

[표 4. 국내 연기금 ESG 투자 운용 규모]

구분	'17 (억원)	'18 (억원)	'19 (억원)	'19.성장률 ('17년 대비)
국민연금	68,778	267,400	269,800	**292%**
사학연금	1,020	1,329	1,263	24%
공무원 연금	739	1,022	1,633	121%
우정사업 본부	1,507	1,230	9,622	538%
합계	72,044	270,981	282,318	292%

[표 5.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구분	발행기관	종목	상장잔액 (10억원)
녹색	9	31	3,030
사회적	9	474	74,141
지속가능	15	44	5,440
전체	29	549	82,661

* 출처 : 최근 글로벌 투자 및 정책동향(금융투자협회, '20.6), ESG국제동향과 시사점(금융위, '21.2)

2 공급망 내 ESG 경영요구 강화

○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정책 강화

• 글로벌기업은 ESG 관련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국내기업 대상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해외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 확대

* 주요내용 : (환경) 온실가스·유해물질 배출 여부, (사회) 근로환경 및 아동노동 여부, (지배구조) 불공정 행위 여부, (기타) 분쟁광물 사용 여부

【표 6. 해외 주요 산업별 지속경영 이니셔티브】

구분	설 명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애플·인텔·테슬라 등 IT기업 중심 147개社 참여 ○ RBA 참여기업 납품시 RBA에서 규정한 지속가능경영 요건 준수 필요
Drive Sustainability	○ BMW·다임러·도요타 등 자동차 기업 10개社 참여 ○ 지속가능 원칙을 제정하여 기업활동시 준수 요청(구속력 無)

* 출처 :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산업부, '20.12월)

○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제도 도입

• EU는 기후변화, 노동 및 인권보호 대응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실사 지침안의 결의안 채택('21.3월) 및 '21년 내 관련 입법안 발표 예정

- (주요내용) EU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자사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 부여
- (대상) EU 시장에 직접 진출한 국내기업 또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권 및 환경위험 관리 필요
- (대응방안) EU 수출 국내 중소기업은 구매기업의 인권·환경 관리 및 인증 획득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 필요

* 출처 : EU 의회 기업 실사 지침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대외정책연구원, '21.6월)

3 ESG 관련 규제·제도화 강화

○ ESG 관련 공시 의무 강화

• (해외) 유럽 국가들은 법에 근거하여,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미국 등은 거래소 규정 또는 특정이슈 공시를 통해 공개

- (유럽)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EU Non-Finantial Reporting Directive, NFRD)에 따라 기업 활동의 환경, 인권, 사회, 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 ('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21.4월 수정안*에 따라 49,000여개 대기업, EU 내 상장법인(중소기업 포함)까지 확대 적용(非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 법인도 적용)

* 대상확대 : (기존) '500인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11,700개소 → (변경)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70만 유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 49,000여개 대기업, EU 내 상장법인
* 보고내용 : 환경·인권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뇌물, 이사진 다양성,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고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 의무
* 출처 :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21.4월)
EU 지속가능금융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5월)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적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의무는 아님. '21.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및 ESG 대책본부 발족

- (중국) '20년 홍콩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 '25년까지 TCFD* 기준에 맞추어 공시 의무화

*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안 제시

* 출처 :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21.7월)

• (국내) 코스피 상장사 대상 ①ESG 관련 사업보고서, ②기업지배구조보고서, ③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사업보고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업량 등을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녹색기업 지정은 수시공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 대상 의무화 예정

* ('19년 기시행) 자산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전 코스피 상장

* '19년 당시 '21년 전 코스피 상장사 대상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했으나, 기업부담 감안, 단계적 추진

- (지속가능경영) 현재 자율공시 사항으로,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 대상 의무화 예정

* (1단계) 자율공시 → (2단계 : ~'25년)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 (3단계 :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

* 출처 :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금융위, '21.01)

○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강화

• EU,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제 강화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21.7월 발표)에 따라, EU 수입자는 탄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23~25년) 이후, '26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

- 미국도 기후변화정책 취약국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중

【 표 7. 주요국 탄소중립 목표 및 관련 정책 】

국 가	내 용
미국	○ (탄소중립 목표) '05년 대비 '30년까지 50~52% 감축, '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 기후변화대처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 탄소중립 목표로 공격적 친환경 정책 추진 - '35년까지 청정에너지·저탄소 등 인프라 2조 달러 지원 예정 -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촉진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소 등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럽	○ (탄소중립 목표) '90년 대비 '30년까지 55% 감축, '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新성장전략인 그린딜 추진(10년간 1조 유로)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5개 정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순환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차량 확산 등 정책방향과 실행방향 제시 - 新산업전략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정책수단 도입 -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핏포55 발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3년부터 시행)
독일	○ (탄소중립 목표) '90년 대비 '30년까지 55% 감축, '50년까지 탄소중립 추구 ○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기후행동 프로그램' 수립 - 전기차('30년까지 700~1,000만대) 및 충전소 보급 (100만대) 활성화 - '30년까지 총 전력소비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수소, 베터리셀, 합성연료를 중점기술로 선정, 기술개발 추진
영국	○ (탄소중립 목표) '90년 대비 50년까지 1/4수준 감축,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 탄소중립 달성과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녹색산업혁명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수립 - 10대 중점부문 대상 120억 파운드 정부투자와 3배 넘는 민간 투자 투입 예정 - 10대 중점계획 : ①해상풍력발전, ②저탄소 수소의 성장주도, ③新원자력 기술개발, ④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⑤녹색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걷기, ⑥무공해 항공 및 선박, ⑦녹색건물, ⑧탄소포집·저장·활용에 대한 투자, ⑨자연환경 보호, ⑩녹색 금융 및 혁신 - 10대 중점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 제시를 위한 에너지백서 발간
중국	○ (탄소중립 목표) '20년 유엔총회에서, '6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20.9월) ○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화 및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전기차 등 新에너지차 비중 '25년 20%, '35년 50%까지 확대 추진 - 신재생 에너지 사용 '30년 25%까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전국 단위 확대
일본	○ (탄소중립 목표) 일본 스가총리 취임 이후 '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20.12월) ○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 등 14개 분야 목표와 실행계획 담은 그린성장 전략 발표 - '50년 발전량의 50~60% 신재생에너지 전환, 판매용 승용차 전동화 추진 - 2조엔 규모 그린혁신기금 조성, 탈탄소제품 도입시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조치

* 출처 :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무역협회, '21.4월),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코트라, '21.1월)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녹색기술센터, '21.5월)

〈 참고 1.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

※ 출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산업연구원, '21.7월)

- **(도입배경) 21년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핏포55(Fit for 55) 발표**
  - EU는 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1990년 대비 55%이상 감축하고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법률로 설정(2021.6월「기후법」유럽 의회 통과)
  - 핏포55는 공정하고(fair) 경쟁력 있는(competitive) 녹색(green) 전환을 목표로 유기적인 제안으로 구성됨
  -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 공개
  - CBAM은 기후정책 강화에 따른 EU 국가의 산업 경쟁력 약화, 타국의 참여유도 등을 위해 EU 집행위가 제안함

- **(시행방안) 25년까지 과도기간 이후 EU ETS(배출권거래제)에 기반하여 시행**
  -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5년까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이 존재하여 CBAM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제품의 직간접적 배출량, 해외에서 지출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보고만을 의무화
  -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EU ETS에 기반하여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TS를 운영함
  - 직접배출량만을 고려하여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EU ETS 탄소가격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입 필요

- **(쟁점) 국가의 산업구조와 이해관계, 설계방식 등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됨**
  - 탄소 배출감축 비용이 개도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으로 인해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 CBAM 설계 관련 쟁점은 기후정책의 동등성 계산 방법, 제도의 복잡성 수준, CBAM 대상 분야와 제품 선정 등이 존재
  - EU와의 교역량이 많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이 중심인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
  - 미국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서 EU와의 교역량이 적고, 기후정책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가 제안되어 추후 긴밀한 연계가능성 증가

  * 철강, 알루미늄 및 비료 등과 같은 1차 제품분야를 수출하는 터키, 러시아, 중국 등

- **(시사점) CBAM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대처 필요**
  - CBAM도입으로 인해 자유무역체제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가치가 전환될 가능성 확대
  - CBAM의 과도기 이후 포괄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 가능성 존재
  - 대EU 수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 소재, 1차제품 분야 영향을 추적하여 적시적인 대응 필요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선진화 필요

4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 (제정배경) 대표적인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을 제시

- (지표구성) 보편적인 기업 정보 부문(GRI 100), 경제 부문(GRI 200, 6개 주제 및 13개 지표), 환경 부문(GRI 300, 8개 주제 및 30개 지표), 사회 부문(GRI 400, 19개 주제 및 34개 지표)로 구성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

- (제정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기 위한 기업의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설립. 산업별로 정보 공개 지표와 지속가능성 주제에 관한 회계 기준을 제시함

- (지표구성) 11개 섹터별 77개 산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각 이슈의 산업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6개, 사회자본 7개, 인적자본 3개, 비즈니스모델 5개, 지배구조 5개의 지표로 구성, 중요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설정함

ISO 26000

- (제정배경)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함

- (지표구성)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와 37개 이슈로 구성

○ 한국거래소 ESG 공개 지표

- ’21.1월 한국거래소 ESG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ESG 정보공개 필요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절차, 준수원칙 등의 정보를 안내
- 환경, 사회, 조직 부분으로 분류하고, 12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보 공개

【 표 8. 한국거래소 ESG 공개지표】

부문	평가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중량
	법규 위반·사고	환경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 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 출처 :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1.1월)

○ 산업통상자원부 K-ESG 지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평가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성격의 한국형 표준 K-ESG 지표 초안을 '21.4월 발표했으며, 하반기 최종 지표 발표 예정
- 국내외 13개 ESG 지표를 바탕으로 선택한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핵심 공통문항으로 구성

【 표 9. K-ESG 평가지표 초안】

부문	평가항목	비고
정보공시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 방식, 사업장 범위, 목표
환경 (14개 문항)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등 환경경영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법규준수	환경 법규 위반
사회 (22개 문항)	사회책임경영 정책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임직원	임직원 다양성, 채용
	인적자원관리	임직원 교육, 역량 개발
	근로환경	사업장 안전관련 사항
	인권	인권정책, 교육
	협력사	공급망, 동반성장 관련 성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현황
	법규준수	사회 부문 법규 위반
지배구조 (20개문항)	이사회	이사회 다양성, 활동
	주주	주주권리, 배당
	소유구조	소유구조
	윤리경영 및 반부패	윤리경영 및 반부패, 준법 현황
	감사	감사기구 관련
	법규준수	지배구조 법규 위반

* 출처 : "한국식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지표 정리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21.4.21)

02 국내외 ESG 도입 사례

ㅇ (해외) ESG 경영 우수사례

• 글로벌 기업들은 ESG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ESG 경영을 도입한 해외기업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

【 표 10. 해외 ESG 경영 우수사례 】

구 분	내 용
폭스바겐	○ [환경(E)] 환경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생산과 운송과정의 탄소배출량 감축, 폐배터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투자 확대 ○ [사회(S)] 난민 대상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및 언어·전문지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배구조(G)]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경영원칙 발표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업체의 윤리 규정 준수여부 검사
아마존	○ [환경(E)] 포장박스 최소화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최소화 ○ [사회(S)] 물류센터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투자, 공급업체의 인권과 환경문제 발생시 계약 종료 방침 수립, 지역사회에 코딩 교육 기회 제공 ○ [지배구조(G)] 직원들과 경영자들간의 실시간 소통의 장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기준 충족여부 공개
마이크로 소프트	○ [환경(E)] 개별 부서가 배출한 탄소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내 탄소세 도입, 일회용품 배제·재활용 확대 추구 ○ [사회(S)] 임원급 흑인채용 증대 및 다양성과 포용성 분야에 투자, 전 세계인 대상 디지털 교육을 통해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 [지배구조(G)] 내부직원을 임원진으로 성장시켜 고용주의 책임감 제고, 전문가·고객 등 다양한 피드백 채널을 통한 회사 운영 결정
이케아	○ [환경(E)] 30년까지 원자재 수급, 생산, 재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 상의 친환경 구현, 탄소중립 목표 선언 ○ [사회(S)] 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한 정기적 감독 및 기준 미달 업체 계약 해지

구 분	내 용
애 플	○ [환경(E)] '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선언 후, 저탄소 소재 사용 확대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생산방식 적용 및 재생에너지 활용 ○ [사회(S)] 신입사원 채용 및 광고모델 선정에서 유색인종과 여성 대상 차별 지양 ○ [지배구조(G)]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 및 코딩교육 제공
파타고니아	○ [환경(E)] 유기농·공정무역 제품 사용 및 친환경 소재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환경 보호와 기업의 재무적 가치 향상을 동시에 실현 ○ [사회(S)]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진출,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조하는 캠페인 실시 및 매출의 일부를 환경을 위해 사용
로레알	○ [환경(E)] 원료·유통·생산·운송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포장재의 크기를 줄여 제품의 환경영향 최소화 ○ [사회(S)] 소외계층을 위한 헤어·메이크업 교육 실시, 공급업체 선정 시 소외계층 채용여부를 고려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월마트	○ [환경(E)] 탄소배출량 조항 및 생태계 보호 인증제도를 통해 공급업체와 함께 친환경 경영 추구, 판매량 예측시스템을 개선하여 식품류 재고 감소 ○ [사회(S)] ESG위원회를 통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인권문제 해결 ○ [지배구조(G)] 공급업체, NGO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드백 수용,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 구성
아스트라제네카	○ [환경(E)]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량·에너지원·원재료 등 공급망 전반에서의 환경영향을 평가 및 개선, 5천만 그루 식목 프로젝트 진행 ○ [사회(S)] 아프리카에서의 교육·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 개선, 협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의료 혁신기술 개발 지원 ○ [지배구조(G)] 주주들의 의견 수용, 외부자문기구를 통해 ESG평가요소 반영

* 출처 : ESG 제대로 이해하기(자유기업원, '21.6월), 각 기업 홈페이지·지속가능보고서

○ (국내) ESG 경영 우수사례

•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ESG 전담조직 구성, 탄소중립 선언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 중임

• ESG 경영은 개별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생태계 차원의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협력사 대상 ESG 경영을 지원하는 대·중소 협업사업* 운영 중

* 협력업체 대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지도,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자금 펀드 운영 등

【 표 11. 국내 ESG 경영 우수사례 】

구 분	내 용
삼성 전자	○ [환경(E)] 설비운영 효율성 개선, 공정·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포장을 위해 포장재, 매뉴얼 등을 지속가능한 종이로 100% 전환, 재생플라스틱 활용 및 폐전자제품 회수 프로그램 운영 ○ [사회(S)] 대규모 채용 추진. 협력업체 대상 인센티브를 지급해 상생경영과 사회 공헌 강화, 노동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장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여건이 부족한 중학생과 개발자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 기초과학 투자 실시 ○ [지배구조(G)] 과반이상 사외이사 운영,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리스크 관리
LG 전자	○ [환경(E)] 내부탄소세, 탄소회계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과 비교, 초과 배출시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 폐기물 관리, 친환경 포장 설계지침서 개발 ○ [사회(S)] '수해서비스 지원 매뉴얼'을 통해 재난지역 제품 수리 서비스 제공 ○ [지배구조(G)]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담은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정. 임직원 대상 신고포상제도 강화. 이사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회사 운영 및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SK	○ [환경(E)] '20.11월 국내 최초로 SK 자회사 8곳을 'RE100' 가입 추진하여 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 [사회(S)] 사내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창구 마련, 취약계층 대상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등 IT교육 실시 ○ [지배구조(G)] '주주소통위원'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구 분	내 용
SK E&S	○ [환경(E)] 수소경제, 온라인 가스 감축 기술 분야 혁신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 [사회(S)]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과 설비개선 지원 및 소셜 벤처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극복 및 사회문제 해결, 상생협력기금 300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사업,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추진
네이버	○ [환경(E)] 친환경 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한 '20.10월 국내 최초 탄소제로를 넘어선 '2040 탄소 네거티브*' 실행 계획 발표. * 탄소 흡수량을 배출보다 높여, 실질 배출량을 음수로 만드는 것 ○ [사회(S)] 기술과 데이터 기반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물류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운영. 윤리실천강령을 통해 파트너와 공정한 거래 추구 ○ [지배구조(G)]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 및 CFO산하의 ESG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 촉진
LG 화학	○ [환경(E)] 전 세계 화학社 최초 녹색채권 발행, 국내 최초 탄소중립 2050선언 ○ [사회(S)] 화학분야 중소기업 ESG 경영자금 제공을 위해 신한은행과 1,000억 규모 펀드 구성하여 대출 이자감면 및 추가 지원, 동반위와 협력하여 ESG 진단, 교육,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대 자동차	○ [환경(E)] 전기·수소차 출시 및 양산을 통해 '친환경 이동성'* 강화, 태양광 기술을 발전설비에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유 중심 수송 체계가 아닌 친환경적인 전기·수소 중심의 수송 체계 ○ [사회(S)] 사막화 방지, 초지복원 등 생태복구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이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대상 차량 제공 사업 추진 ○ [지배구조(G)] 과반이상의 사외이사를 통해 모니터링 수행, 윤리규정 등 윤리 판단의 근거 마련, 임직원의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수행,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통해 ESG관련 의결 수행

* 출처 : ESG 제대로 이해하기(자유기업원, '21.6월), 각 기업 홈페이지·지속가능보고서

03 ESG 지원 정책

1 국내 ESG 지원 정책

○ (정책금융) ESG 우수기업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중진공, 기보 등)

• 그린기술 사업화, 온실감축 등 친환경 중소기업 대상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중

【 표 12. 정책금융기관의 ESG 지원사업 】

사업명	내 용
Net-Zero 정책자금	· (지원대상) 그린기술 사업화, 친환경 제조 전환기업 대상 · (지원내용)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 자금을 장기저리(5~10년) 공급 · (지원한도)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15%, '21.3분기) + 0.5%p · (지원규모) 200억원 ('21년 기준)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녹색보증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영위 기업 또는 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 등을 중점 지원 ·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기술혁신(개발), 저탄소사업전환 지원 · (지원내용)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지원대상 선별·평가하고, 탄소가치를 반영한 한도가산·보증료 등 우대 *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권 가격을 바탕으로 탄소가치를 산출하여 평가 · (지원실적) 183개 업체, 1,513억원 ('20년 기준) ·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 (지원대상) 소셜벤처(S-Venture) 기업 판별기준 충족기업 · (지원내용)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에게 우대보증 지원 ·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5%p · (지원실적) 321개 업체, 1,239억원 ('20년 기준) ·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출처 :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탄소중립 경영 전환을 위한 탄소수준 진단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패키지로 지원
- (지원대상)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 (지원한도) 컨설팅·기술·마케팅 패키지 70백만원 (컨설팅만 50백만원)
  - (공정혁신형) 공정효율화, 시제품 개발 등 공정개선 및 제품혁신
  - (에너지효율제품형) 친환경·저탄소 인증, 디자인 및 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 (탄소중립조직형) 에너지효율화 등 저탄소전환을 위한 조직대응 역량강화
- (사업규모) 100억원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중소 상생협력) 자상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자발적 상생협력문화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 대기업의 강점과 노하우를 거래 중소기업뿐 아니라 비협력사에게도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기업
- (지원내용)
  - (평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방성장평가 우대 가점 부여
  - (포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공포상에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분야'를 신설하여 포상
- (추진현황) '19년 5월 이후 현재 25호까지 자상한 기업 탄생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향후계획)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의 지속적 발굴로 '자상한 기업'의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

○ (대·중소 상생협력) 협력사 ESG 지원사업 (동반성장위원회)

- (사업개요)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ESG 전문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 해소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3자인 동반위에서 평가

- (지원대상)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
- (지원내용) 동반위의 ESG 표준가이드라인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실시 후 동반위 명의 확인서 발급
  - (ESG 교육) ESG개요 및 현황, 맞춤형 협력사 ESG 평가지표 교육
  - (역량진단) 맞춤형 협력사 ESG 평가지표로 자가진단 실시
  - (컨설팅) 역량진단 완료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선정 및 컨설팅, 평가
  - (확인서 발급)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 중소기업 대상 확인서 발급
- (수행기관) 동반성장위원회

○ (보조금) 글로벌 CSR+ESG 지원사업 (코트라)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우리 기관·기업의 해외자회사 또는 현지법인
  - (동반성장형 CSR유형) ①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지사회에 기부, ②한국의 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③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④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 대상 기증 및 산업 표준과 운영경험 공유
  - (상생지원형 ESG유형) ①탄소절감 제품 등을 현지 기업 대상 기부 또는 기술전수, ②국내 다문화인을 무역전문가로 육성, ③의료장비 기부 및 기술전수, ④ESG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CSR 동향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보고서 제작 등
- (지원내용) 기부 제품 부대비용, 콘텐츠 제작비 등의 비용을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해외 ESG 지원정책

- EU가 ESG 관련 정책은 선도했으나, 미국, 중국 등도 정책기조를 전환해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ESG 정책 추진 중
- 주로, 저탄소 분야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환경 분야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로 ESG 관련 규율이 강화되고 있음

【 표 13. 주요국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동향 】

국가	주요내용
미국	○ 기후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ESG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투자활성화, 제도정비 등 추진 -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2조 달러 규모(8년간)의 인프라 건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21.3) - (투자) 미 증권거래위원회 ESG 전담본부 신설, 기존 ESG 펀드 투자를 어렵게 한 연금 투자상품 규칙*을 철회하여 ESG 투자활성화 모색 * 투자상품 선정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 고려시 법적신탁의무가 가중 - (제도정비) 공공기관 대상 친환경·국민안전정책에 반하는 규정 검토·개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발효(에너지 효율, 오염물질 배출 완화 기준 등)
EU	○ 그린딜, 사회적 공정성·지속가능성 보장 등 ESG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 - 유럽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EU 新산업전략을 추진 중이며 지속가능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략 마련 - (산업전환 경로조성) 산업계, 정부가 함께, 산업 전환경로를 공동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업전환에 필요한 조치(규모, 비용, 조건 등) 수립·이행 - (예산) 수소, 지속가능 운송 등 친환경 2,500억 유로, 디지털화 1,300억 유로 지원 - (R&D) Horizon Europe('21~'27, 총 995억 유로)을 활용,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차세대 범유럽 혁신 생태계 지원
중국	○ 2060 탄소중립 목표로 14차 5개년 계획에서 녹색발전 정책방향 설정 - (에너지)친환경 에너지 비중 '25년까지 20%로 설정 - (공시의무)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대상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등 ESG 분야 성과공개 요구 - (금융)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녹색금융시책 추진

국가	주요내용
일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세제개혁, 규격·표준화 정책 추진 -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과 그린투자촉진펀드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등 그린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대상 투자 강화 - (R&D) 15조엔 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유치 지원 - (공시의무) 기업의 ESG 대응상황을 공시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마련 예정 - (제도정비) 신기술 수요창출을 위한 규제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싱가포르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2030 그린플랜 추진 중 - (에너지 재편) 태양광 시설 설치 5배 증대, 건물 80% 이상 녹색건물 전환, 디젤 차량 신규 등록 규제, 전기차 충전소 6만개 설치 - (녹색경제) 탄소 세율 재편,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 탄소중립 투자 확대
칠레	○ 신규 원자재 발굴, 지속가능한 광물채취를 위해 ESG 중 환경(E)에 대해 강조 - (대체에너지 개발) 국가수소원 설립을 통해 수소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진행 - (환경) 생산진흥청에서 연료전지 개발, 광산보존 등 지속가능한 채굴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방콕	○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규제 강화 및 전기차 지원 정책 -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18~'30)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제조·사용·유통 금지방안 마련 - (전기차) 전기차 로드맵('20~'30)을 수립해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추진('30년까지 전기차 75만대 생산 목표)
인도네시아	○ ESG에 대한 기업 실천은 초기단계로 정착을 위한 정부프로그램 운영 - (평가제도) 기업 환경경영평가 등급제(PROPER)를 통해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유도 - (세제혜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인력양성)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확산을 위해 거버넌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KOSME 글로벌 동향브리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6월)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녹색기술센터, '21.5월)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시사점(한국무역협회, '21.5월)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Ⅲ ESG 경영과 중소기업

01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 中企 ESG 경영 필요성 인식과 준비 수준

•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에 대한 인식과 준비수준을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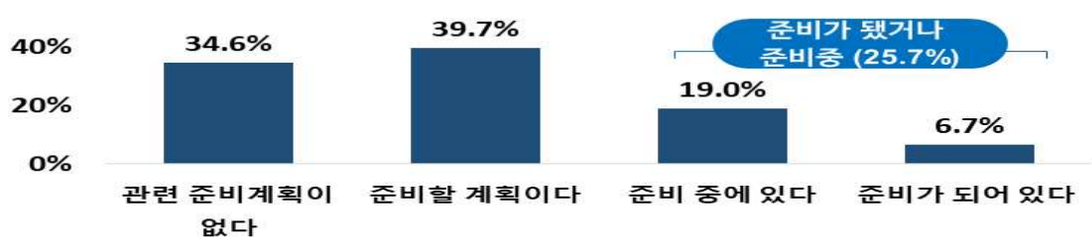
【 표 14.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개요 】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조사기간	◆ 6월 15일(화) ~ 6월 18일(금)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300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4.73%P

* 출처 : KOSME 이슈포커스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1.7, 중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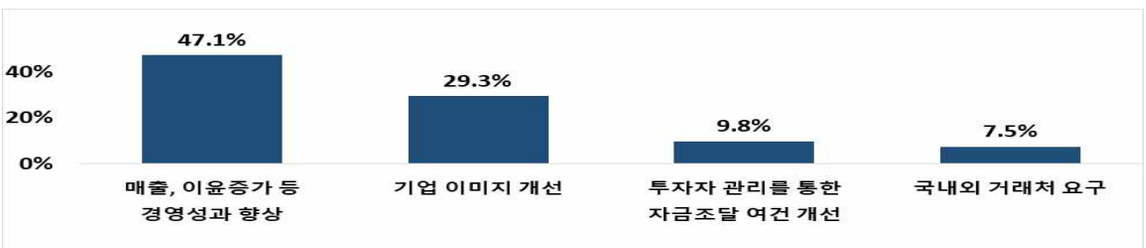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8.0%)은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4곳 중 1곳(25.7%)만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었으며, 대부분의 기업(74.3%)은 '준비 계획이 없거나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하여, ESG 준비수준은 다소 저조함

【 그림 2. ESG 경영 준비 필요성 (n=300) 】



•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4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국내외 거래처 요구(7.5%)”, “기타(환경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6.3%)” 등으로 나타남

【 그림 3.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n=174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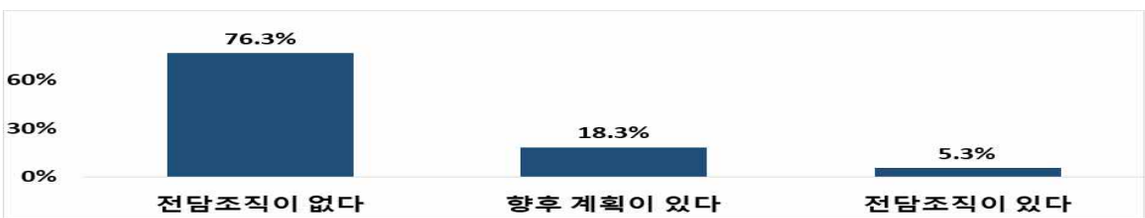
*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74개사

- 탄소 多 배출업종인 화공업종은 “국내외 거래처 요구” 에 따른 ESG 필요성 응답 비율(14.3%)이 전체 평균(7.5%) 대비 높은 편으로,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대부분(92.0%)는 ESG 평가 경험이 없었으며, ESG 경영 전담 조직이 있거나 향후 설치 계획이 있는 기업도 23.7%(조직 보유(5.3%)*+설치 예정(18.3%))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ESG 대응 수준은 낮은 상황임

* 매출 500대 기업의 23.8% ESG 전담조직 보유 (전경련, ’2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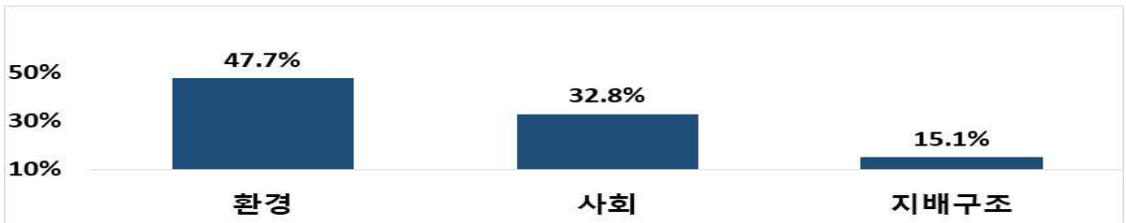
【 그림 4. ESG 경영 준비 전담조직 마련 여부 (n=300) 】



○ 中企 ESG 경영 난이도와 실천현황

• 응답기업은 환경(E) 분야(47.7%)가 가장 준비가 어렵다고 꼽았으며,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18.4%)”과 “환경 법규 준수(16.7%)” 등의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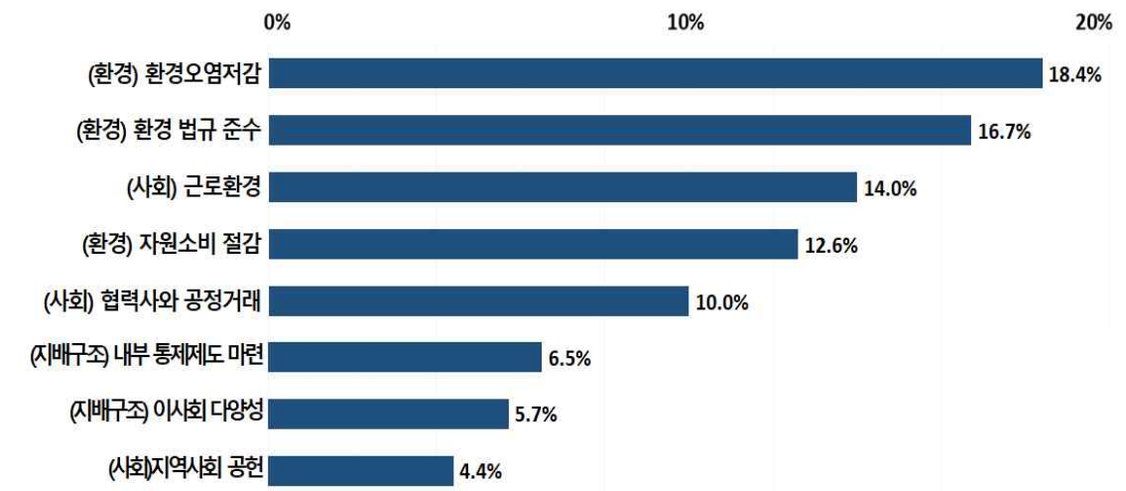
【 그림 5.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분 (n=522개 사례)* 】



* 응답기업이 복수응답한 사례 522개

- 이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과 설비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림 6.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세부부분 (n=522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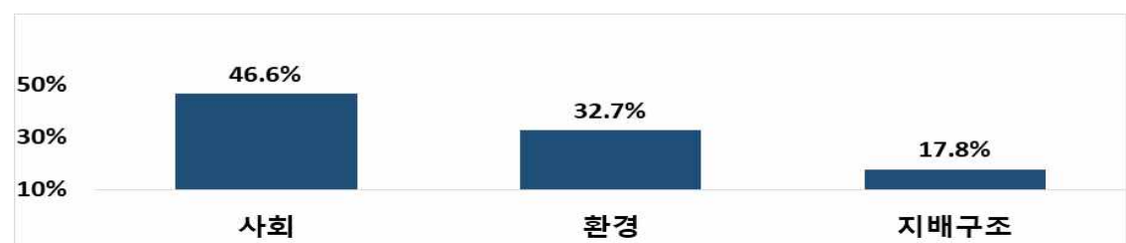


* 응답기업이 복수응답한 사례 5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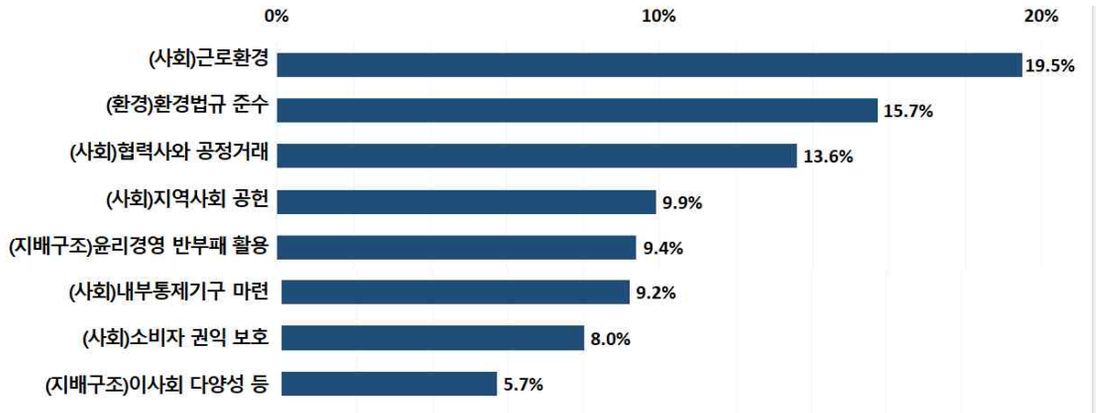
• 응답기업은 ESG 중 사회(S) 부문 실천도가 가장 높았으며, 환경(E), 지배구조(G) 순임

- 근로환경(정규직 비율 등)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 법규 준수(15.7%), 협력사와 공정거래(13.6%) 순으로 나타남

【 그림 7. 실천한 ESG 경영 활동 (n=758개 사례)* 】



【 그림 8. 실천한 ESG 경영 세부 활동 (n=758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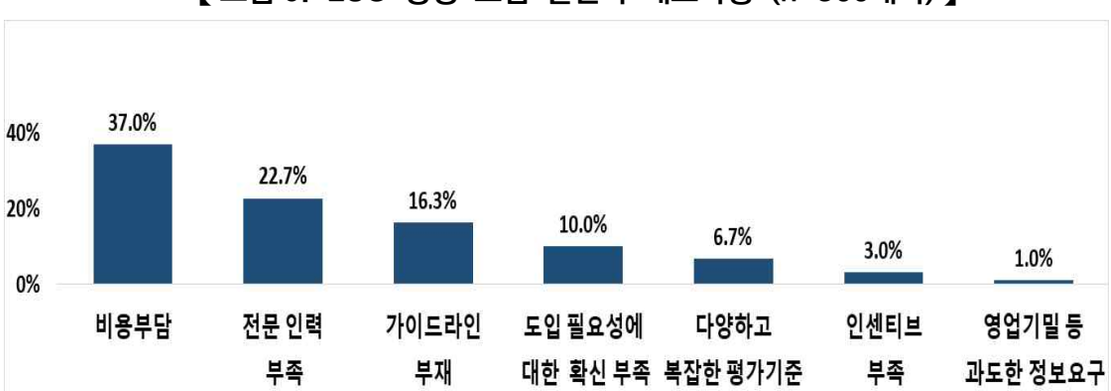


* 응답기업이 복수응답한 사례 758개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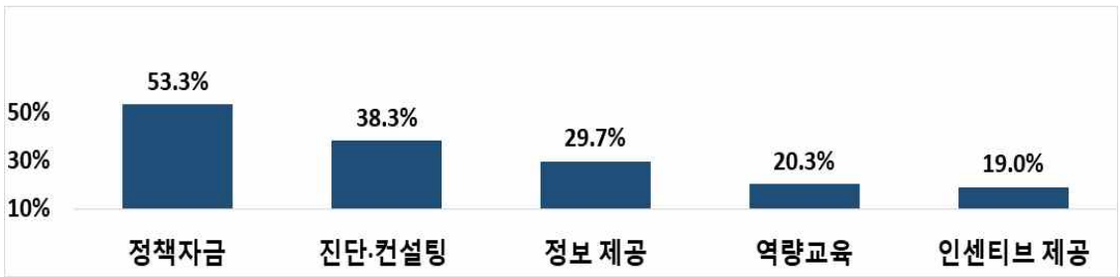
- ESG 경영 도입·실천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ESG 전문 인력 부족(22.7%)”,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16.3%)”,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10.0%)”, “다양하고 복잡한 ESG 평가기준(6.7%)”, “ESG 경영 도입시 인센티브 부족(3.0%)”,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9. ESG 경영 도입·실천시 애로사항 (n=300개사) 】



-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29.7%)”, “역량 강화 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기타(비용지원 등)(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10. ESG 경영 도입·실천시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n=300개사 】



- 전기·전자(44.8%) 업종은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식료(57.9%) 업종은 ESG 진단·컨설팅(5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 시사점

• 中企의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준비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中企 대상 ESG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 中企는 ESG 부문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법규 준수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어, 中企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진단·컨설팅, 공정개선 등 정책지원 강화 필요

• ESG 경영도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을 꼽아, ESG 경영전환을 위한 정책자금, 보조금 등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부담 이외에, 전문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등에 대한 애로도 상당하여, 직접적인 금융지원 이외에, 인력양성,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자금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전기·전자 업종은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식료업종은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ESG 진단·컨설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02 중소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 투자와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

• (투자) 정부의 ESG 분야 모태펀드* 출자와 민간영역에서의 ESG 분야 스타트업 육성·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ESG 분야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 기대

* 정부가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 하지 않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

-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미래환경산업, 소셜임팩트 등 ESG 분야 펀드에 출자를 추진
- 최근에는 금융권, 대기업 등에서 ESG 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①지속가능성 분야 투자 ②사회·환경적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 등을 추진함에 따라, ESG 분야 기업 대상 투자 확대 기대
- 신한금융그룹은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ESG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중이며, SK그룹은 'ESG코리아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스타트업 ESG 경영을 지원 중임

【 표 15. 대기업의 ESG 분야 스타트업 투자 사례 】

기업명	내 용
농심	○ (푸드테크) 미래 먹거리 발굴 목적으로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
SK·카카오	○ (ESG펀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ICT 기업의 ESG 활동 지원
GS	○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바이오 기술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아이템 발굴
신한금융	○ (신한퓨처스랩) 핀테크, 헬스케어, ESG 분야 스타트업 선발·육성
OB맥주	○ (스타트업밋업) 녹색혁신성장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
KT&G	○ (상상스타트업캠프) 자원 재활용, 소외계층 등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창업팀 발굴·육성

* 출처 : ESG 스터디노트, 스타트업 산업에서의 ESG현황 및 사례(퓨처플레이, '21.7월)

• (대출) 은행권에서도 ESG 우수기업 대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심사 요건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고려할 계획으로 자금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ESG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표 16. 은행의 ESG 우수기업 대상 프로그램 】

구분	내 용
신한	○ ESG 경영 우수기업과 협력사 대상 금리 우대 제공 -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21.3월) : ESG 우수社 대상 0.2~0.3%p 금리 인하
KB	○ '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금액을 50조원까지 확대, -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21.4월) : 평가기준 충족에 따라 최대 0.4%p 금리 인하
농협	○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 녹색 인증기업 대상 대출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한도 제공 - NH 친환경 우대론('21.3월) : 환경 기여도에 따라, 금리 최대 1.5%p 인하
IBK 기업 은행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개선, 혁신성장 관련 기술기업 대상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대출 ○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대상 금융을 지원하는 IBK일자리 플러스 대출

* 출처 : ESG 대출 상품 내놓는 시중은행(조선비즈, '21.4),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IBK기업은행, '21.8)

• (정책금융)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강화 및 ESG 우수기업 대상 맞춤형 상품 확대 추진

* (중진공) Net-Zero(그린기술, 친환경 제조전환기업 대상) 유망기업 융자, (기보) 녹색보증, 소셜임팩트 보증 등, (수은) ESG 평가모형 기반 대출 지원 등

○ 공급망에서 경쟁우위 확보 가능

• 국내외 대기업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확대하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 협력사 대상 ESG 경영 표준 공유 및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탄소배출량, 인권평가 등 ESG 관련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 RE100* 캠페인 참여 확대 등 환경을 고려한 ESG 경영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애플 등 RE100 참여기업들이 자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323개사 참여, '21.8월 기준)

- 전 세계적으로 32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애플, BMW 등과 같이 협력사 대상 RE100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다국적 기업도 증가 추세
- 국내에서도 SK그룹(SK하이닉스 등 6곳),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가입('21.8월 기준)

•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또 다른 부담과 규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시 새로운 경쟁우위와 기회요인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ESG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접근 필요

【 표 17. 국내외 기업의 ESG 기반 공급망 관리 사례 】

구분	설 명
포스코	○ 공급자의 환경 및 인권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윤리경영 등 ESG 요소를 심사 후 공급사 자격을 부여하는 '포스코형 ESG 구매체계' 구축 ○ 에너지 고효율제품, 친환경 인증제품 등 친환경 구매 금액 2배 증액(20억 달러)
현대차	○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안전(안전관리매뉴얼 등), 친환경부품(환경경영 등), 윤리·인권(투명경영, 거래계약 준수 등) 분야 점검
아모레퍼시픽	○ 협력사 대상 환경법규 진단·개선사업 추진 ○ 공급업체 대상 인권·안전·보건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및 개선 시스템 도입
LG 전자	○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친환경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대상 CSR 자가점검 실시 및 컨설팅 제공 ○ 분쟁광물(텅스텐, 주석, 금)의 원산지 모니터링 및 RMAP(Responsible Mineral Assurance Process)인증 요구
벤츠	○ Ambition 2039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핵심 기준으로 협력업체 선정. '39년 이후에는 탄소중립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과만 계약 체결 ○ 공급사 대상 ESG 경영 표준 제시 및 준수 의무여부에 따라 계약 결정 ○ 협력사 대상 인권 및 노동 이슈 관련 ESG 경영 표준 준수 의무 부여 등
이케아	○ '30년까지 전 공급망의 친환경 달성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 40여 명의 목재삼림전문가를 고용하여, 원산지 증명 및 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해 정기적 감독 수행

* 출처 :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21.4월), 각 회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 소비자 또한 제품 구매시 해당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소비자들이 그린슈머(Greensumer)*로 변화하면서 환경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그린슈머 : 녹색(Gree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사용된 소재와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이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함

- 특히, 20대 중반에서 40살 전후까지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MZ 세대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여, 사회와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나아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담긴 가치관과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높은 편임

- '21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63.0%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응답. 또한, 소비자의 70.3%가 'ESG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21.5)

• 소비자의 ESG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기업의 ESG 경영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드는 요인이라 볼 수 있음

• 높아진 환경기준, 소비자 인식에 적극 대응하고 ESG 경영활동을 시장에 적극 전달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등 성과가 우수함

- 국내 친환경 세제시장을 선도하는 ㈜성신상사와 5년 연속 아가물티슈 1위 판매기업인 에이제이(주) 등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사례라 볼 수 있음

【 표 18.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

기업명	내 용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 [환경(E)] 중고거래를 통한 자원 재사용으로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 [사회(S)]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와 동네주민을 연결하는 '내근처'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교육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소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 [지배구조(G)] 상호 존중의 수평 커뮤니케이션 문화 보유 ○ [경영성과] 기업가치 3조원 달성, 가입자수 2000만 돌파
㈜성신 상사 (친환경 세제)	○ [환경(E)] '11년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소다 등 친환경세제 제품 출시 후 주요 온라인 쇼핑몰 친환경 세제 판매 1위 기업으로 성장 ○ [사회(S)] 식품에만 적용되던 성분 표기정보를 제품 패키지와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객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공유 ○ [경영성과] '20년 매출 90억원으로 '16년 68억 대비, 5년 내 1.3배 증가
에이 제이(주) (아기물티슈)	○ [환경(E)] '14년 자연생분해 되는 레이온 100% 원단의 물티슈, 베베숲 출시 후 미국, 유럽 등 15개국에 수출 중으로 5년 이상 아기물티슈 판매 1위 기업 ○ [사회(S)]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획득 ○ [경영성과] '20년 매출 920억으로, '16년 467억 대비 2배 이상 증가
㈜생활 공작소 (생활용품)	○ [환경(E)] 안정성이 검증된 최소한의 성분, 합리적인 가격, 직관적 디자인 등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한 생활용품 판매. 친환경 종이포장재를 활용, 자연유래 성분을 활용하여 환경·신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사회(S)] 성남 FC와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성남 FC가 K리그에서 득점할 때마다 적립금을 모은 뒤, 시즌 종료 후 적립된 금액만큼 생활공작소 제품을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전달 ○ [경영성과] '20년 매출 290억으로, '19년 135억 대비 2.2배 이상 증가
동구밭 (화장품)	○ [환경(E)] 친환경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은 고체비누 판매 ○ [사회(S)]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발달장애인으로 고용하였으며,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공식 인증까지 획득해, 윤리적 소비자 수요 충족 ○ [경영성과] '20년 매출 56억으로 '19년 22억 대비 2.5배 이상 증가

* 출처 : 해당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취합 등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방향(중소벤처기업연구원, '21.8월)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Ⅳ 中企 ESG 추진현황과 경영성과

01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추진현황

○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평가

-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가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을 활용 중이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성, 사업성, 정책목적성 항목이 포함됨

- '17년부터 수출역량, 고용창출 등 정책목적성 평가지표를 신규로 도입

- '19년에는 사회적 성과(공동체 발전기여, 공공의 이익 추구 등) 항목을 신규로 도입하여 평가에 반영함
  * 사회적 평가 항목 설계시 GRI(ESG 공시 가이드라인) 기준을 반영

- ESG 관련 평가내용

  - (환경 경영활동)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여부

  - (고용) 고용의 양적수준, 질적수준, 고용창출 노력도

  - (산업보건 및 안전)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 및 작업환경 인증 등

  - (공동체 발전 기여) 기업 간 상생과 협력활동 노력 여부, 노동권 및 윤리·인권 보장 노력 여부. 민주적 의사결정 적용 여부

  - (공공의 이익 추구) 지역사회 공헌 여부, 사회적 약자의 고용여부 등

  - (지배구조) 소유구조의 안정성(경영권의 안정성),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대여금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재무정보 및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 표 19. K-ESG 평가지표와 중진공 평가지표 비교】

ESG 평가항목		중진공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구분	항목	내용
환경	환경경영 활동	정책목적성	공공의 이익추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여부 (친환경설비, 에너지저감장치 사용여부 등)
사회	고용	정책목적성	고용창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고용	정책목적성	고용 질적수준	급여, 장기재직 정도
	다양성·기회균등	정책목적성	공공의 이익추구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의 채용
	산업보건 및 안전	기술성	산업재해 예방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산업보건 인증(KOSHA-18001)
	공급업체	정책목적성	공동체 발전기여	기업 간 상생과 협력활동 노력 여부 (선급금 지급, 현금 지급)
	지역사회	정책목적성	공공의 이익추구	지역사회 공헌 여부
	노동권과 인권	정책목적성	공동체 발전기여	노동권 및 윤리·인권 보장 노력 (단체협약, 윤리·인권경영 실행)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정책목적성	공동체 발전기여	민주적 의사결정 적용 여부 (이사회 개최, 직급별 전결권 이양)
	소유안정성	경영능력	지배구조	소유구조의 안정성 (경영권의 안정성)
	윤리경영	경영능력	신뢰성	대표자 신뢰성, 경영실권자 여부, 대여금 여부 등
	재무공시	경영능력	재무정보 및 제출 자료의 신뢰성	재무제표 신뢰성 외부감사 의견

○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분야별 성과분석 표본

• 분석에 활용된 업체는 '19년과 '20년 평가된 3년 이상 제조업 기업으로 '19년 3,762개사, '20년 2,260개사 총 6,022개사임

-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초기 창업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ESG 관련 평가가 대부분 포함된 사회적 성과 평가항목은 '19년 이후 도입되어 '19년 이후 평가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

- 사회부문의 근로환경(산업재해 예방수준) 지표는 제조업 평가 시에만 활용되는 항목으로 분석대상을 제조업에 국한함

• 업종별로 기계(26.4%), 금속(20.1%), 화공(15.5%)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표 20. 연구표본 구성 : 업종별 】

구분	업체수			비중		
	2019	2020	합계	2019	2020	합계
기계	993	595	1,588	26.4%	26.3%	26.4%
금속	780	429	1,209	20.7%	19.0%	20.1%
화공	596	339	935	15.8%	15.0%	15.5%
식료	381	323	704	10.1%	14.3%	11.7%
잡화	338	188	526	9.0%	8.3%	8.7%
전자	230	140	370	6.1%	6.2%	6.1%
전기	235	135	370	6.2%	6.0%	6.1%
섬유	156	86	242	4.1%	3.8%	4.0%
기타	53	25	78	1.4%	1.1%	1.3%
합계	3,762	2,260	6,022	100%	100%	100%

• 업력별로 5년 미만(24.7%), 7년 미만(17.7%), 15년 미만(15.7%)의 순임

【 표 21. 연구표본 구성 : 업력별 】

구분	업체수			비중		
	2019	2020	합계	2019	2020	합계
5년미만	923	565	1,488	24.5%	25.0%	24.7%
7년미만	697	370	1,067	18.5%	16.4%	17.7%
10년미만	514	312	826	13.7%	13.8%	13.7%
15년미만	570	373	943	15.2%	16.5%	15.7%
20년미만	506	295	801	13.5%	13.1%	13.3%
20년이상	552	345	897	14.7%	15.3%	14.9%
합계	3,762	2,260	6,022	100%	100%	100.0%

○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분야별 성과분석 방법

• ESG 관련 평가항목은 검토사항과 체크항목으로 구성

- 검토사항의 경우, 보통 이하, 보통, 양호, 우수의 순으로 평가

- 체크항목의 경우, 해당 없음, 해당으로 평가

• 표 22 평가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ESG 수준을 파악

- 표 22 평가결과를 0~1점을 부여하고 평균 산출한 후 100을 곱함

- 체크사항의 경우 해당없음(0점), 해당(1점)으로 반영하고, 검토항목의 경우 보통이하(0점), 보통(0점), 양호(1점), 우수(1점)으로 반영

【 표 22. 평가지표별 평가현황 】

평가	보통이하 해당없음(건수)	보통 (건수)	양호 (건수)	우수 해당(건수)	비고
환경경영 활동	3,897	0	0	2,125	체크사항
고용창출	1,977	1,669	922	1,454	검토항목
고용의 질	52	2,966	2,465	539	검토항목
고용의 기회균등	3,563	0	0	2,459	체크사항
산업보건 및 안전	60	2,808	3,062	92	검토항목
공급업체 협력	4,032	0	0	1,990	체크사항
지역사회 기여	5,043	0	0	979	체크사항
노동권과 인권	1,388	0	0	4,634	체크사항
민주적 의사결정	3,794	0	0	2,228	체크사항
소유구조 안정성	26	631	4,127	1,238	검토항목
윤리경영 (대표자 신뢰성)	177	795	2,924	2,126	검토항목
재무공시	70	3,178	2,658	116	검토항목

- 지원기업의 ESG 평가항목별 추진여부를 0과 1로 반영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환경부문이 36.3점이라는 것은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 기업이 36.3%라는 의미

- ESG 평가항목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

  - E(환경)은 1개 평가항목 점수를 그대로 활용, S(사회)는 7개 평가항목 점수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단순 평균점수를 활용. G(지배구조)는 4개 평가항목 점수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단순 평균점수를 활용

  - ESG 전체점수도 E,S,G 점수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단순 평균점수를 활용

○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분야 성과

• (전체) ESG 성과지표는 '20년 52.0점으로 '19년 45.3점 대비 6.7점 개선되었으며, 환경부문이 39.7점('20년)으로 사회부문(47.6), 지배구조(68.8) 대비 낮았으나, 전년 대비 개선율은 21.6%(7.1점)로 가장 높았음

- 환경부문은 '19년 32.6점에서 '20년 39.7점으로 7.1점(21.6%) 개선됨
- 사회부문은 '19년 42.0점에서 '20년 47.6점으로 5.5점(13.1%) 향상
  * 사회 부문 중, 고용의 기회균등 분야 개선도(20.6점)으로 가장 높았음
  * 사회 부문 중 노동·인권과 산업보건 분야가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해당 분야는 법적, 제도적 규제가 있어, 실천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배구조는 '19년 61.0점에서 '20년 68.8점으로 7.6점(12.5%) 개선됨
  * 소유 안정성은 '20년에 점수가 하락함
  * 소유 안정성(88.0점)이나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96.4점)분야가 민주적 의사결정(41.6점)과 재무공시 신뢰성(49.1)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함

【 표 23. ESG 수준(연도별) 】

구분	평가지표	2019	2020	차이	증감률
환경	환경경영 활동	32.6	39.7	7.1	21.6%
사회	고용창출	38.8	40.5	1.7	4.4%
	고용의 질	47.6	53.6	6.0	12.6%
	고용의 기회균등	33.1	53.7	20.6	62.3%
	산업보건 및 안전	54.6	48.7	-5.9	-10.7%
	공급업체 협력	31.0	36.5	5.5	17.6%
	지역사회 기여	15.3	17.9	2.6	17.0%
	노동권·인권 보장	74.0	81.9	8.0	10.8%
	소계	42.0	47.6	5.5	13.1%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34.2	41.6	7.4	21.5%
	소유구조 안정성	89.8	88.0	-1.8	-2.0%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76.3	96.4	20.1	26.3%
	재무공시	44.3	49.1	4.8	10.9%
	소계	61.1	68.8	7.6	12.5%
전체 (평균)		45.3	52.0	6.7	14.8%

• (업력) 업력별로 ESG 성과지표는 7년 미만(45.7점), 15년 미만(48.6점), 15년 이상(50.0점)으로 업력이 높을수록 ESG 수준도 높아졌으나, 환경 부문은 업력이 높을수록 상승하다가 15년 이상 기업에서는 다시 하락함

- 사회부문에서 고용창출과 지배구조 부문에서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지표는 업력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일수록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임. 또한 업력이 높아질수록 외부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자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어 소유구조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음

【 표 24. ESG 수준(업력별) 】

		7년미만 (a)	15년미만 (b)	15년이상 (c)	b-a	c-b
업체수		2,555	1,769	1,698		
전체		45.7	48.6	50.0	2.9	1.4
· 환경		34.2	36.7	35.4	2.4	-1.3
· 사회		41.1	44.7	48.0	3.5	3.3
· 지배구조		61.8	64.5	66.7	2.7	2.2
환경	환경경영 활동	34.2	36.7	35.4	2.4	-1.3
사회	고용창출	48.4	37.1	28.4	-11.3	-8.8
	고용의 질	41.7	51.2	60.8	9.5	9.6
	고용의 기회균등	34.2	42.2	49.4	7.9	7.2
	산업보건·안전	46.4	53.9	59.8	7.5	5.8
	공급업체 협력	32.5	32.6	34.3	0.0	1.8
	지역사회 기여	10.0	16.9	25.0	6.9	8.1
	노동권과 인권	74.7	78.7	78.5	4.1	-0.2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30.5	39.6	44.1	9.2	4.5
	소유구조 안정성	90.1	88.6	88.1	-1.5	-0.5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86.0	83.3	81.3	-2.7	-2.0
	재무공시	40.8	46.7	53.3	5.9	6.6

• (종업원수) 규모가 큰 기업이 전체 ESG 수준과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ESG 수준이 높았으나, 환경 부문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오히려 높았음

- 지배구조 부문의 소유구조 안정성과 윤리경영 분야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오히려 높았음. 고용창출도 20인 미만 규모까지는 높아지다가 20인 이상 규모에서는 다시 하락함
- 이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표자의 경영권이 안정적이고, 내부통제가 원활하여, 소유구조 안정성과 윤리경영 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에서는 고용창출이 일정기간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됨

【 표 25. ESG 수준(종업원수) 】

구분		10인미만 (a)	20인미만 (b)	20인이상 (c)	b-a	c-b
업체수		2,219	1,631	2,172		
전체		45.0	47.7	50.7	2.7	3.0
환경		36.3	36.1	33.7	-0.2	-2.3
사회		36.6	44.4	51.6	7.8	7.2
지배구조		62.2	62.7	66.9	0.6	4.2
환경	환경경영 활동	36.3	36.1	33.7	-0.2	-2.3
사회	고용창출	36.1	45.7	38.2	9.7	-7.5
	고용의 질	31.1	49.8	69.1	18.7	19.2
	고용의 기회균등	30.4	41.5	51.0	11.1	9.5
	산업보건 및 안전	41.8	51.4	63.9	9.6	12.4
	공급업체 협력	33.5	32.2	33.2	-1.3	1.1
	지역사회 기여	10.6	13.8	23.8	3.2	10.1
	노동권과 인권	72.7	76.3	81.8	3.6	5.4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28.3	35.6	46.9	7.3	11.2
	소유구조 안정성	92.4	88.0	86.5	-4.4	-1.5
	윤리경영	88.1	84.5	79.0	-3.6	-5.6
	재무공시	39.7	42.7	55.1	3.0	12.4

• (업종) 업종별로 ESG 성과지표는 식료(50.2점), 화공(49.3점), 기계(47.9점), 금속(47.8점)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부문은 화공(38.9점), 식료(37.8점), 금속(36.0점) 순으로 나타남. 화공, 금속 등은 탄소 多배출업종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대응 수준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부문은 식료(47.4점), 기계(45.6점), 화공 및 전기(43.9점) 순임
- 지배구조 부문은 식료(65.5점), 섬유(65.3점), 화공(65.2점)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6. ESG 수준(업종별) 】

구분		금속	기계	섬유	식료	잡화	전기	전자	화공	기타
업체 수		1,209	1,588	242	704	526	370	370	935	78
전체 평균		47.8	47.9	46.3	50.2	46.0	46.1	43.7	49.3	49.9
환경 평균		36.0	34.3	31.8	37.8	35.0	31.1	27.8	38.9	46.2
사회 평균		43.3	45.6	41.9	47.4	41.1	43.9	41.5	43.9	39.6
지배구조 평균		64.1	63.7	65.3	65.5	62.0	63.4	61.8	65.2	64.1
환경	환경경영 활동	36.0	34.3	31.8	37.8	35.0	31.1	27.8	38.9	46.2
사회	고용창출	36.1	38.7	31.4	44.2	40.1	40.0	43.5	41.1	43.6
	고용의 질	50.0	55.9	39.7	46.7	41.4	49.2	49.2	51.0	35.9
	고용의 기회균등	42.8	40.3	47.9	45.7	39.7	41.4	29.2	39.7	29.5
	산업보건 및 안전	50.3	54.3	46.3	59.8	46.8	51.1	52.2	52.2	43.6
	공급업체 협력	33.3	33.9	37.2	35.4	32.3	31.4	28.1	31.4	32.1
	지역사회 기여	14.2	15.7	16.9	24.3	15.8	16.8	10.5	15.5	21.8
	노동권과 인권	76.7	80.2	74.0	75.7	71.7	77.8	77.6	76.4	70.5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33.6	36.1	31.8	44.2	33.8	39.7	37.6	39.9	29.5
	소유구조 안정성	91.0	88.0	91.3	89.6	89.4	87.8	85.9	89.2	87.2
	윤리경영	83.9	83.6	86.4	85.1	79.7	84.9	84.1	84.3	88.5
	재무공시	47.9	47.1	51.7	43.0	45.1	41.1	39.7	47.4	51.3

02 ESG 수준과 경영성과

○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성과 우수기업의 ESG 평가현황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상·하위 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ESG 지표 중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공급업체 협력 부문이 성장성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 전년도(18년 또는 19년) 대비 평가 당해연도(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 증가율 비교

- 반면, 산업보건·안전, 지역사회, 노동권과 인권, 소유구조 안정성 등의 ESG 지표 성과와 성장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고용창출 부문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55.9점)과 성장성이 낮은 기업(32.4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등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반영

【 표 27. ESG 성과현황(매출액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하위	상위	c-a
		a	c	
환경	환경경영 활동	34.6	37.6	3.0
사회	고용창출	32.4	55.9	23.5
	산업보건·안전	52.7	47.2	-5.5
	공급업체 협력	32.8	33.3	0.5
	지역사회 기여	16.7	10.4	-6.3
	노동권과 인권	78.6	73.7	-4.9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37.4	34.0	-3.4
	소유구조 안정성	89.3	86.8	-2.5
	윤리경영	83.2	86.5	3.3
	재무공시	45.6	40.4	-5.2

* 전체 표본 제조업체 6,022개사 중 하위 15%(903개사), 상위 15%(904개사) 비교

* 상·하위 5%, 10%, 15%, 20%, 25% 그룹 비교를 통해 상·하위 편차가 유의한 기준 선택

• (수익성) 영업이익률* 상·하위 기업기업의 ESG 지표 성과를 분석한 결과, ESG 지표 중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공급업체 협력 부문이 수익성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률은 지원 평가 당해연도(19년 또는 20년도) 실적 기준

- 반면, 산업보건·안전, 지역사회, 노동권과 인권 등의 부문에서 평가가 우수한 기업의 성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창출(42.7점)이 수익성이 저조한 기업(35.4점) 대비 높아, 고용창출 지표와 수익성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환경경영 성과도 높아, 수익성과 환경경영은 상호 연관성이 있었으나, 유의수준(상하위 점수차 0.9점)은 낮은 편임
-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구조 안정성과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이 기업의 존속과 지속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지표와 수익성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표 28. ESG 성과현황(영업이익률) 】

매출액영업이익률		하위	상위	
		a	c	c-a
환경	환경경영 활동	34.7	35.6	0.9
사회	고용창출	35.4	42.7	7.3
	산업보건·안전	58.4	46.6	-11.8
	공급업체 협력	31.8	32.6	0.8
	지역사회 기여	18.8	13.3	-5.5
	노동권과 인권	78.5	72.7	-5.8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44.1	30.6	-13.5
	소유구조 안정성	85.6	91.3	5.7
	윤리경영	80.4	88.7	8.3
	재무공시	51.3	41.2	-10.1

* 전체 표본 제조업체 6,022개사 중 하위 15%(903개사), 상위 15%(904개사) 비교
* 상·하위 5%, 10%, 15%, 20%, 25% 그룹 비교를 통해 상·하위 편차가 유의한 기준 선택

• (시사점) 성장성과 수익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고용창출 등 ESG 지표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 공급업체 협력 등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필요

- 특히,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저조한 기업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고용창출 부문으로, 고용창출 지표와 경영성과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 고용 우수기업 대상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상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환경경영 지표 또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경영전환을 위한 컨설팅, 설비도입, 공정개선 등의 정부 지원책 마련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경영 확산 필요

- 윤리경영(대표자의 신뢰성), 공급업체 상생협력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

V 결론: 시사점 및 정책제언

01 중소기업의 ESG 대응방향

1 중소기업의 現 ESG 대응 수준

○ 中企 동향조사 결과: ESG 필요성 인지하나, 준비상태 미흡

• 앞서 소개한 중소기업 ESG 동향조사 결과와 같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10곳 중 6곳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준비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ESG 경영이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ESG 평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실천 현황은 사회부문이 비교적 양호하고 환경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천 난이도 또한 환경부문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

- 한편, 업종별로 ESG 필요 목적, 취약 부문, 정책 등의 응답에서 차이를 보여, 업종 특성에 따른 대응 수준과 대응방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응답이 높아, 이러한 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도입 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

- ESG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원기업 ESG 평가 결과: 전년대비 개선, 경영성과와 상호 연관성

• 전체 ESG 수준은 '20년 52.0점으로 '19년 45.3점 대비 6.7점 개선됨

- (부문별) 환경 부문이 39.7점('20년)으로 사회(47.6), 지배구조(6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개선율은 21.6%(7.1점)로 가장 높았음
- (업종별) 전체 ESG 수준은 식료(50.2점)가 가장 높았으며, 화공(49.3점), 기계(47.9점), 금속(47.8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업력별) 전체 ESG 수준은 업력 15년 이상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에서도 업력이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보임
- (종업원 규모별) 전체 ESG 수준과, 사회·지배구조 부문은 규모가 큰 기업이 높았으나, 환경은 소규모 기업이 오히려 높았음(규제적용 완화 관련 추정)
- (시사점) 지원기업의 ESG 수준 분석 결과,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ESG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 성장성과 수익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ESG 부문별 지표와 경영성과와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과 ESG) 매출액 증가율 상위 및 하위 15%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용, 환경경영 활동, 윤리경영(대표자 신뢰성), 공급업체 상생협력 등의 지표가 성장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과 ESG) 매출액영업이익률 상·하위 15%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용, 환경경영 활동, 소유구조 안정성, 윤리경영, 공급업체 상생협력 등의 지표가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 고용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ESG 경영 도입은 중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연관성이 높았던 지표인 고용, 환경경영, 윤리경영, 공급업체 상생협력 분야에 관한 정책 마련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ESG 수준 향상, 경영성과 개선 및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됨

2 중소기업의 향후 ESG 대응방향

○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접근

• ESC 공시제도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공시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현행 중진공 주력 지원대상인 창업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게는 아직은 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구매·입찰 등 거래대상 선정에서도 ESG 관련 평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담은 사회나 지배구조 보다는 환경 부문이 가장 큰 애로로 작용(동향조사 결과)

- (환경)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 확산 및 국내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오염배출 설비 교체 및 친환경 공정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직접 자금투입이 필요한 환경부문에 대해 현실적 부담과 시급성을 인식
- (사회) 작은 조직의 특성상 인사관리 및 노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편임. 다만, 근로자 근무여건, 품질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고객관계 등의 관리 수준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지배구조)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대표이사 중심의 가족경영 위주로 인해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임. 다만, 대부분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보니, 경영 투명성 부문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속적 거래관계에 있거나, 시장지위가 열위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앞서서 도전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기에는 위험부담이 존재

- ESG 전담조직 마련, 환경설비 투자, 투명경영 시스템 구축, 마케팅 전략 수정 등 다방면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동종 업계가 처한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정보력 및 전문인력 부족, 단기간에 전략 수립 및 전담조직을 꾸리는 것의 어려움, 환경 관련 설비투자 소요자금 마련 등에 애로가 있어, 도입 초기 섣부른 투자로 인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략의 수정 및 재투자 필요성 등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ESG가 대세적 흐름임은 인지하되, 규제로 인식하여 피로를 느끼기 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춘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략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표 29. 선행연구에서 다룬 中소 ESG 경영 추진 방향 】

구 분	주요 접근 방향
중소기업연구원 (2021. 8)	•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자금 조달 환경과 구매자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손실과 기회요인을 제시 - 외부자금조달 환경(직접금융-투자·사채, 간접금융-대출 등) - 구매자 환경(B2B 기업, B2C 기업, 수출기업)
대한상공회의소 · 삼정KPMG (2021. 8)	• 중소기업의 ESG 관리를 위한 E, S, G 부문별 주요 지표를, 관리 용이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화 하여 제시 - 단기 내 우선 추진(예: 지배구조-투명경영 등) -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예: 환경-유해물질 배출/폐기 등) - ESG 역량 고도화(예: 사회-직장내 차별/괴롭힘 금지 등) - ESG 기반 비즈니스기회 확보(예: 환경-친환경 사업기회 등)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일부 차용하여, ESG 경영 환경 변화의 영향이 가장 시급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기업 유형으로는, ①글로벌 공급망 소속기업과 납품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 ②소비자 직접판매(B2C) 기업, ③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분류하였음

3 ESG 영향의 시급성을 고려한 기업 유형별 대응방향

○ 글로벌 공급망 소속기업 및 납품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 주요국의 ESG 규제 확산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규제의 강화는 미국, EU 등 글로벌 기업 공급망 소속기업과 납품 수출기업에게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침

-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수출기업에게 무역장벽화 우려, 특히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 업종은 2023년부터 조기 적용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

- 글로벌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가 증가 추세로, 공급망 소속기업에게도 동반 참여를 요구, ESG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협력사에도 준수를 요구

* 전체 가치사슬, 제조공정 전반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전환 요구 등
** 환경(온실가스·유해물질 배출), 사회(근로환경 및 아동노동), 지배구조(불공정 행위) 등

- 국내 대기업도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전담조직 신설, RE100 가입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협력사에도 공동참여 요구할 전망

• 이에 따라 관련 공급망 소속 중소기업 및 거래 수출기업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음

- 만약 중소기업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배제되는 기존 기업을 대체하여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새로이 편입될 가능성(중기연, 2021)

•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 규제, 거래 기업의 ESG 규범 등 협력사에 대한 요구 수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이에 부합하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단계별 친환경 공정 전환, 공정한 고용 및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비, 평가 및 인증 등의 획득이 필요하나, 비용은 도입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은 정보력 및 전문인력 부족, 단기간에 전략 수립 및 전담조직을 꾸리는 것의 어려움, 환경 관련 설비투자 등 자금 마련에 애로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직접판매(B2C) 기업

•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 특히 그린슈머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구매에 있어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

-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 친환경 생산은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기업 및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관련 B2C 기업이 ESG 대응 부족으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음

- 만약 선제적으로 ESG 요소를 갖추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업종 및 품목에 따라 소비자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업종 부문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생활소비재, 유아용 제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경우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보다 민감하므로, 친환경 성분 사용 및 동물실험 배제, 관련 인증 획득 등의 대응 필요

* 기계류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보다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나 성능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친환경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및 성능시험 등의 대응 필요

• 후발 중소기업은 보다 전략적으로 업계 선도기업·대기업의 ESG 추진 동향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빠르게 쫓아가는 대응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시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정보 접근성 및 전문인력 부족, 투자비용 과다, 마케팅전략의 수정 등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연관 업계 선도기업의 ESG 마케팅 성공·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ESG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인력 확보, ESG 평가 및 인증 획득 등의 절차 및 관련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책적 도움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글로벌 선도 금융부문에서 투자대상 선정 시 재무적 성과 외에 비재무적 ESG 평가요소를 고려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 중심으로 ESG 투자* 확대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중

* ESG 채권 발행, ESG 펀드, 사회적 책임투자, 임팩트 투자 등

** 컨설팅 및 평가기관 등에서 ESG 평가 참여, 향후 다양한 경로의 자금 조달에서 ESG 평가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전망됨

- 융자, 보증 등의 정책금융 기관에서도 ESG 평가기준에 따른 우대기준*을 마련 중이며, 벤처투자 모태펀드의 투자지침에서도 ESG 평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자금조달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금리 우대, 한도 우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시 ESG 배점 확대 등

• 다만, 어떤 항목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책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강제하기 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인 규율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ESG 도입 실무를 안내하는 매뉴얼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및 도입 준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정책 분야에서도 향후 ESG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상기 ESG 영향의 시급도에 따라 3개 유형을 먼저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업구조 및 업종 특성상 단기적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존재함

-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그린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대세적 흐름이며, 향후 부문 간 격차는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부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을 병행 필요

02 ESG 연계지원 방안 제언

1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

○ ESG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이 취약하고 ESG 경영이 생소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실무적인 수준의 가이던스 제시 필요

- 중소기업 표준 가이던스* 제시를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중진공 주력 지원대상을 타겟으로 한 실무 매뉴얼 제작

* 전통제조 부문, 창업 초기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게 일반 가이던스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취약부문 중소기업의 수준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

- 특히, 기업 규모나, 업종(품목)*, 거래관계 유형** 등에 따라 시급성, 인식 및 준비 수준 등에 차이가 큰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인식 개선에 기여

* 제조와 서비스, 소비재와 산업재, 환경 이슈가 큰 업종 등(에너지, 오염배출 산업 등)

** 글로벌 기업 공급망 소속기업, 납품 수출기업, 대기업 하도급 거래기업, 소비자 직접 판매 기업, 외부자금 조달 기업 등

【 표 30. 中企 ESG 실무 매뉴얼 내용 구성(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예시)
ESG 해설		• 기본 개념, 국내·외 동향 및 추진사례, ESG 도입 필요성
지표별 관리항목	환경 (E)	•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법규 등 • 에너지 효율, 재활용 • 탄소(온실가스)·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 폐수관리 등
	사회 (S)	• 사회책임경영 목표 및 정책, 법규 등 • 사업장 안전관리 • 근로자 근무여건, 인권 • 공급망, 고객 관리 • 사회공헌
	지배구조 (G)	• 지속가능경영(윤리·투명) 목표, 정책 • ESG 전담조직, 공시 •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 내부통제, 감사기구
유형별 대응전략		• 기업 규모, 업종 및 품목 등에 따른 지표별 대응 유의사항 • 거래관계 유형(B2B, B2C 등)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 등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비대면) 구축·운영

• 중진공 기업평가 시스템에 반영된 ESG 연관 평가지표를 모듈화* 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검토

* 현행 경영기반, 사회적책임, 환경 및 고용 등의 ESG 관련지표 및 축적된 데이터 기반

- (최초 이용기업) 중진공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이 공개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 기업 기본정보와 ESG 분야별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직접 입력하면 자사의 ESG경영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볼 수 있도록 구현

- (기존 평가기업) 기업이 중진공 지원사업의 자사 평가이력을 직접 조회하고 변경사항만 입력하면 수정 반영된 진단 결과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 (진단결과 제공) 축적된 기업평가 데이터를 활용, 기업 유형별* 비교 값을 제시함으로써 진단기업이 스스로의 ESG 실천 수준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 기업 규모별, 업종별 전체 평가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값(평균 등)을 제공

○ ESG 경영 추진사례 및 글로벌 동향정보 수집·제공

• ESG 경영 추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최신 글로벌 동향정보 등을 수집·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 및 정보역량 강화에 기여

- (ESG 추진 사례집)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사례 외에도 중진공 현장 거점을 활용,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제 추진사례 위주로 수집하면 후발기업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 가능

*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우수 추진사례, E,S,G 분야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등

- (ESG 글로벌 동향정보) 중진공 해외거점을 통해 국가별 ESG 관련 규제 및 글로벌 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정책 등 최신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현지 진출(희망) 기업 및 수출기업 대상으로 제공

* KOSME 글로벌 동향 브리프(각국의 ESG 정책동향, 2021년-제6호) 발간 등

2 중소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

○ ESG 기업진단 기반 실천계획 수립 및 맞춤 연계지원

•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 정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원성과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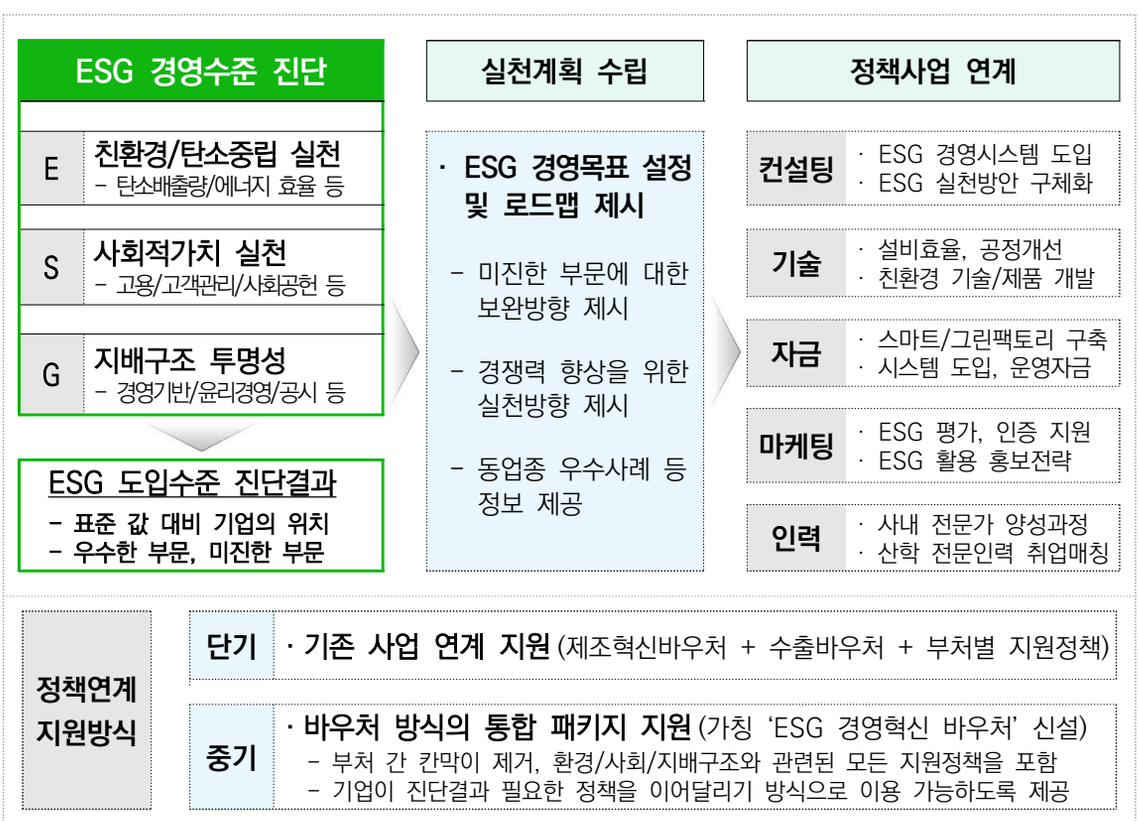
- 기업 유형(예: 규모, 업종 등)별 진단툴 적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 값(참여기업 평균 및 중간값)을 도출, 이와 비교하여 기업의 현재 위치를 제시

- 우수한 부문과 미진한 부문이 표시된 진단 결과 보고서를 피드백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실천(보완)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진단 결과 실천·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계 정책사업*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후속 정책지원 원활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인력양성 등 기관별·부문별 지원기능 안내

【 그림 11. ESG 진단기반 정책연계 지원체계(예시) 】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의 ESG 경영전략 도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문·컨설팅 제공

-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의 하도급 기업, 납품 수출기업 등 ESG 규율 강화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 ESG 최초 도입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ESG 평가요소로 공급망 관리가 포함되며, 수출·하도급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 증대

- (분야별 컨설팅) ESG 구성 요소별 컨설팅을 모듈화(예: 사업장 안전관리,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 인사·노무관리 등)하여 기업의 애로 분야별 선택적 자문 제공

- (탄소중립 바우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과제인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컨설팅을 바우처사업* 형태로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

* 전통제조 및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 바우처 예산 확대

** 탄소수준 진단 → 탄소중립 컨설팅 → 기술(시제품·설계·사업화 外) 및 마케팅(인증·브랜딩·홍보 外) 패키지 지원 → 정책자금 융자 및 유관기관 지원책 등 연계

ESG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 ES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CEO 연수) 중소기업 CEO 대상의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

* 연관 업종별 과정 개설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정보 교류를 지원

- (ESG 전문가) 중소기업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납품, 입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한 평가 등에 대응

* 기존 경영 및 기술연수 개설 과정에 ESG 분야별 중요 이슈를 반영

• 산학 협력을 통한 ESG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매칭

- 친환경 공정전환에 따른 스마트 제조인력 등 핵심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산학 협력을 통한 맞춤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제도 활용 지원

○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 민간 ESG 투자가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접근

- 특히, 설비 투자, 친환경 공정 전환 등으로 고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탄소중립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 현행 中企 정책자금 내 운영 중인 전용자금(net-zero, 스마트공장 등) 예산 확대, 그린 팩토리 전환 및 솔루션 도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 등 지원범위 확대

- 환경 외, 사회 및 지배구조 부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범위 추가 검토
  * (예) 근로여건 개선, 사업장 안전관리, 품질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등

• ESG 평가 우수기업 대상 전용상품 제공, 우대 지원 및 성과 확산

- (ESG 우수기업 전용자금) ESG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일정 부문을 ESG 우수기업에 배정
  * 성장공유형 자금(민간의 사회적책임투자, 임팩트투자와 같은 형태로 목표 배분 운영)
  * 스케일업 금융을 활용한 ESG 우수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별도 차수 또는 배분)

- (ESG 우수기업 우대) ESG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범위(별도 운전자금 등) 및 한도 우대 적용, 금리 환급제도 운영 등

- (ESG 우수기업 성과 확산) 지원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성과를 추적,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 및 우수사례 작성 등에 활용

• ESG 관련 피해기업 일시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지원

- (일시애로 해소) 글로벌 기업 등의 ESG 공급망 정책 변경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일시적 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사업전환 지원) ESG 관련 변화된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전환 실천계획 수립에 의거 소요자금 지원
  * (예) 업종 및 품목 변경, 동일 업종이더라도 친환경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경우 등

3 중소기업 ESG 경영 저변 확대

○ 특구 지정을 통한 위기 대응 및 취약부문 안전망 확충

• 낙후지역 특구 지정을 통해 ESG 전환에의 대응력 강화

- 지역별 주력산업에 따라, 오염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노후 산업단지 위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선제적 위기대응 체제를 갖추고 ESG 전환에 적극 대응

* 탄소·오염 多배출 업종: 금속(주조, 표면처리), 화학(고무, 플라스틱, 사출) 등

- 정책중개 기능을 통해 위기지역 기업의 당면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통해 스마트그린 단지로의 전환을 도모

* 업종별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 지원, 스마트 공장 및 그린 팩토리 구축 지원 등

- 스마트 공장 구축 등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인력의 고용 이탈에 대비, 재직자 역량강화 및 직무전환 교육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병행

* 中企 고용전환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직자 고용안정을 지원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확대

•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및 지역 간 혁신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젝트 주도

- 중진공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 공급망 주도기업(대기업)과 관련 협력기업과의 ESG 상생협약*을 추진

* 지자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정책 지원기관, 민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다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지역산업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ESG 공급망 정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공정개선 및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책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 제공

- 지자체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제공 등 다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ESG 대응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중장기) 中企 ESG 평가정보 DB 구축 및 공개

• 중진공이 정책지원 과정에서 축적해온 중소기업 ESG 평가정보의 DB화 구축 및 대외 공개를 통해 中企 ESG 수준에 관한 기준점 제공 검토

- 연도별 기업평가(및 진단) 데이터 축적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E, S, G 분야별 평가지표의 표준값을 산출, 지수화 하여 통계정보* 형태로 제공

* (가칭) 中企 ESG 경영동향(유사사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中企 ESG 실천 수준의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 ESG 평가 및 실천을 위한 저변 확대에 기여

* 공급망 주도기업의 거래기업 선정 평가 시, 공공구매 등 정부 조달 및 입찰 평가 시, ESG 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기관 및 창투사 등

【 그림 12. 中企 ESG 평가정보 DB 공개(예시) 】

(가칭) 중소기업 ESG 경영동향 보고서(연도별 발간)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 탄소배출량 ‣ 폐수관리	‣ 고용창출 ‣ 근로여건	‣ 경영기반 ‣ 윤리경영
‣ 에너지효율 ‣ 인·허가 …	‣ 고객소통 ‣ 사회가치 …	‣ 통제·감사 ‣ 공시 …

※ 통계표(표준산업분류 기준) : 全산업, 제조업(세부 업종), 非제조업(세부 업종)

○ (중장기) 中企 ESG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중소기업의 ESG 대응 관련 정보의 집중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ESG·탄소중립 관련 정책 지원정보,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 매뉴얼 및 동향 정보, 추진 사례, 中企 ESG 평가정보 DB(통계정보) 등을 제공

- 범부처 지원 정책에 관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 기관별 지원정책과 연계

* 향후 관련 정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패키지 지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합 사업관리 플랫폼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구축 검토

* 정책 지원기관 협의회 발족을 통해 ESG 정책 지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 협의

참고 문헌

- 대한상의·삼정KPMG(2021),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 대한상의·삼정KPMG(2021),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 대한상의(2021),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도자료 (2021.5.31.)
- 한국거래소(2021),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동향과 국내 시사점”
- GSIA(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 금융투자협회(2020),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 산업부(2020),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 산업부(2021), “한국식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지표 정리 본격 착수” 보도자료 (2021.4.21)
- 강애림(2021), “EU 의회 기업 실사지침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6.21. Vol. 4 No. 32
- 한국무역협회(2021),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 오태현(2021), “EU 지속가능금융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5.25. Vol. 4 No. 27
- 무역협회(2021),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Trade Focus 2021년 13호
- 코트라(2021), “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1-001
- 이구용·이민아(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녹색기술센터 GTC FOCUS 2021 Vol.2 No.1
- 임소영·양주영(20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9호 [2021-18], 2021.7.23

- NICE평가정보(주)(2021), “국내외 ESG 평가지표 현황 분석”(연구용역)
- 곽은경 외(2021), “ESG 제대로 이해하기 - 국내외 기업의 ESG 사례와 정책과제”, 자유기업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KOSME 글로벌 동향 브리프 2021 Vol.6, 각국의 ESG 정책동향”
- 무역협회(2021),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차이나 마켓 리포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KOSME 이슈포커스 2021-8호,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퓨처플레이(2021), “ ESG 스터디노트, 스타트업 산업에서의 ESG현황 및 사례”
- 김윤진(2021), “ESG 경영, 대기업-스타트업 협력방안”, 대한상의 브리프 제146호 2021.4.19
- 관계부처 합동(2021),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나수미(2021), “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방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4호
- IBK 기업은행(2021),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 LG전자 뉴스룸(2021), “친환경기업에 열광하는 소비자들”, 2021.3.25
- 김동진(2021), “근거없는 ESG 대출 상품 내놓는 시중은행”, 조선비즈, 2021.4.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병옥** 정책연구실장

연구자 **장지원** 정책연구실 부장

연구자 **양지애** 정책연구실 과장

협업부서

스마트진단기술처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

발 행 인 김학도

편 집 인 정책연구실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